

## § 인간과 윤리

### 1. 도덕과 윤리

도덕과 윤리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Morality, Ethics, 독일어에서는 Moralitat, Sittlichkeit, Ethik, 프랑스어에서는 Morale, Ethique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단어는 어원상으로 본다면 그리스어의 에토스(Ethos) 또는 라틴어의 모레스(Mores)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스어의 에토스라는 말은 첫째로 오래 살아 정든 장소·주거지·고향을 의미하며, 둘째로 집단의 관습이나 관행을 의미하고, 셋째로 그와 같은 관습이나 관행에 의해서 육성된 개인의 도덕 의식, 도덕적인 심정이나 태도·성격 내지는 도덕성 그 자체를 의미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 윤리라는 말은 세 번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사용되고 있다.

도덕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행하여야 할 이법(理法)과 그것을 자각하여 실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윤리란 倫- 무리, 사람들의 무리, 理- 이법, 이치를 의미하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인간관계의 이법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오늘날 윤리라는 말은 도덕이라는 말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도덕과 윤리는 어원으로 따져 볼 때 엄밀하게 같은 뜻은 아니나 일상 생활에 있어서 이 두 말은 거의 같은 뜻의 용어로서 통용되고 있으며 학자들도 구태여 그 구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 역시 도덕과 윤리라는 말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음을 또한 시사한다. 양자를 구별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윤리라는 개념은 도덕이라는 개념을 포괄하며 도덕이라는 개념은 윤리라는 개념의 한 측면만을 가리킨다고 본다.

윤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망될 수 있으나 그 중심 문제는 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관점에서 윤리학은 선과 악에 대한 탐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탐구다.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이며 언제나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선택의 문제에 부딪힌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 생활 속에서 늘 윤리적인 문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가 혹은 옳은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까.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가. 크고 작은 일상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한다.

도덕학의 창시자, 소크라테스의 도덕 철학의 기본적 구성 요소들이다.

1.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다.
2. 한 개인에게 있어 가장 적절하며 중요한 활동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3. 소크라테스 자신이 지식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한다.
4. 소크라테스의 역설: 공공의 의견(doxa)에 반하여(para) 소크라테스가 옹호했던 윤리적 입장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 a. 덕은 곧 지식이다. b. 모든 덕은 하나이다. c. 각 개인은 자발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다. d. 어떤 것도 덕이 있는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는 없다.

소크라테스는 덕을 앎, 지식이라고 주장한다. 덕(virtue은 그리스어로 아레테arete다. 아레테의

첫 의미는 어떤 특성의 일에 있어서 능함이다. 구두 만드는 사람을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만일 누군가 훌륭한 제화공이 되고자 한다면, 첫째로 필요한 것은 구두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사용할 도구와 재료를 가장 좋은 것으로 정한다거나 그것을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정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덕, 아레테는 먼저 일정한 할 일을 가지는데 달려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일이 무엇이며 그것이 달성하고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앎에 달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덕을 얻고자 한다면, 첫 번째 할 일은 사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목표 또는 기능을 발견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인생의 보편적인 목적이나 목표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소크라테스 방법의 본질은 대화자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는 것이다. 사실 무지의 깨달음은 지식 획득의 필연적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 지식을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식을 탐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사명을 사람들이 그들의 무지를 깨닫도록 하는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만일 우리가 지혜, 올바름 그리고 훌륭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올바르게 그리고 훌륭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악덕과 방종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파악했고, 절제를 앎이나 인식과 같은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윤리적 덕의 본질은 곧 앎, 지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의 견해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나는 그의 주주의, 즉 덕은 앎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인간이 아는 바를 행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정의롭게 행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식이 덕이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전제할 경우, 이로부터 만일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도출되는 듯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가? 이것이 사실인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다.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이 윤리적인 문제에 천착했고 이에 따라 서구철학사에는 다양한 윤리 이론들이 있다. 그 가운데 칸트의 도덕철학과 공리주의 사상은 서구 윤리이론을 대표하는 兩大 이론이라 할 수 있다.

## 2. 칸트의 윤리 사상

### 1) 선의지(善意志, good will)

칸트의 윤리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의지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선의지가 있으며 이성적인 인간 존재는 선한 행위를 지향한다. 칸트는 이를 의심할 수 없는 도덕의 사실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선의지란 무엇인가.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 근본원리>의 첫 구절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이 세상에 있어서나 이 세상 밖에 있어서나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 밖에 없다.” 칸트의 선의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선의지란 이성의 가르침에 따라 옳은 행위를 그 결과야

어떠하든 단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의지이다. 선의지는 오로지 그것이 선을 의욕하기 때문에만 선한 것이며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이다.

그 자체로서 선한 것,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선한 것, 이 세상에는 선의지 외에도 그 자체로서 선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예컨대, 지성, 용기, 사려 깊음, 절제, 인내심, 행복, 건강, 명예, 지식, 쾌락, 재능, 사랑 등을 생각해 보자. 칸트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좋은 것일 수는 있으나 이것들은 조건적으로 좋은 것일 뿐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은 아니다. 만일 유능한 사기꾼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 권력이나 부, 명예 등을 얻고 자선 사업까지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 재주, 부, 명예, 행복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랑이, 모든 재능이, 모든 지식이 선한 것은 아니다. 사랑, 지식, 건강, 재능등,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이끌어 주는 의지가 선할 때만 선한 것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선의지는 경험적 의지나 자연적인 경향을 따라서 옳은 행위로 쏠리는 의지와 다르다. 경험적 의지는 自己愛에 따라 행동하도록 명령하는 의지, 즉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하는 의지를 말한다. 그리고 이 의지는 행동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인간이 자기애에 따라 행동하려는 자연적 경향성을 가진 존재임은 본성적인 사실이다. 때문에 대개의 경우 인간은 자기애의 경향이나 그때그때의 감정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인다.

자기애의 경향에 따라 행동의 목표를 정하고 그 행동이 자기에게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고려하고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러한 자기애의 자연적 경향과 경험적인 의지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 경험적 의지만 있다면 도덕의 문은 열릴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의지는 욕망의 명령, 자기애의 경향에 따르는 의지가 아니고 순수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의지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법칙, 즉 욕구나 자기애의 경향성을 거스르면서 도덕 법칙에 합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인간만이 자기의 이익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면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 2) 선과 악, 옳음과 그름 right와 wrong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와 연관된다. 좋고 나쁜 것과 옳고 그른 것은 구별되는 것이다. 도덕적인 행위란 무엇인가.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는 선의지에 따르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이다. 선의지의 有無에 따라 도덕적인 선악이 결정된다. 사랑, 부, 명예 등 우리가 좋은 것이라 믿는 것들 역시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선도 악도 될 수 있다. 즉, 선의지에 의해 사용되면 선이요, 나쁜 의지에 의해 사용되면 악이 된다. 칸트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가 선의지에 따른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순수한 이성의 명령에 따라, 옳기 때문에 해야만한다는 의무 의식에서, 의무로부터, 선의지에서 말미암은 행위가 도덕적인 것이다. 의무임을 의식하고 그것이 옳

은 일이라는 의무감에서 행동할 때 그러한 행위만이 도덕성을 띤다.

예컨대, 천성이 착한 사람이 자선 행위를 열심히 하며 살고 있다고 하자. 그러한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 칭찬 받을 만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다. 타고난 자연적 경향이 착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죽을 지도 모른다고 동정심이 발동하여 선한 일을 한 경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선의지에서 말미암아, 스스로 그에 따라 행동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한 어머니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식을 구하려다 죽음을 맞이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지 ‘나는 내 아이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행위 한 것은 아니다.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은 의무에 부합하기는 하나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그것이 의무이며 옳은 행위라고 의식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즉,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거야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 그것의 어떤 결과나 목적이나 이익이나 즐거움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옳기 때문에 한 행동일 때 그 경우에 대해 도덕적인 행동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칸트는 이를 적법성(legality) 혹은 합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며 도덕성(morality)이 있는 행위와 구별한다. 적법성과 도덕성은 다른 것으로서 선의지에 의한 행위만이 도덕적인 행위, 도덕성을 가진 행위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인 행동은 자기애의 경향, 자연적인 경향이나 감정적인 욕구에 따르는 데 있지 않다. 즉 순수한 의도, 옳다는 의식, 의무 의식, 순수한 이성의 작용에 따르는 것, 순수하게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 순수한 理性의 命令, 그것이 바로 칸트의 도덕법칙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의지는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동기와 관계된다. 칸트는 어떤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결과를 고려하고 행위 하는 것은 행위의 순수성이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행동의 결과 얼마나 많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문제는 도덕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도덕은 어떻게 하면 더욱 유용한가 아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야기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행위가 公利나, 동정, 행복, 사랑등을 위해서 나온 것이라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다. 칸트는 행위의 목적보다 행위의 동기, 명분을 중시한다. 행동은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때문에 우리는 칸트의 윤리사상을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 부른다.

도덕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 동기라는 것, 행위의 도덕적 성질은 결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도, 동기에서 구해야 한다는 칸트의 생각은 중요한 통찰로 평가된다. 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이고 어떤 행위가 그른 행위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통찰이 없다면 도덕에 있어서 어떤 행위가 도덕적 의무인지 알 수 없으며,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라는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 3) 가치있는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윤리의 문제에 대해 기존의 많은 철학자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거나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거나 혹은 全知 全能한 신의 계율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해 왔다. 칸트가 볼 때 이러한 기존의 전통적인 이론들은 온전한 의미에서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고귀함, 가치 있는 삶,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정으로 말해 주지 못한다.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도덕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쓰고 있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은 행복을 최고 가치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다. 도덕 철학의 본령은 행복을 논하는 데 있지 않다. 왜냐하면 도덕은 행복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일종의 처세술과 같은 것으로서 도덕철학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 칸트는 행복을 거부한다거나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도덕 철학에서 논의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 칸트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잘 알고 있었다. 칸트에게 있어 행복은 도덕과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나 선하게 살다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행복할 만한 사람이 행복해야 하며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이로부터 도덕은 어떻게 하면 행복에 알맞은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는 칸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은 가치 있는 삶,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도덕적인 삶은 선의지를 일생 동안 함양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삶을 말한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삶, 도덕 법칙에 일치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이 가치 있었다, 위대한 삶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가 뛰어난 지능, 용기, 신체, 재능, 판단력 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의지를 가지고 이를 오랫동안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사람의 재능이 위대한 것으로 평가받으려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때,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재능이었을 때이다.

가치 있게 살았다는 것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을 축하하고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칭찬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며 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도덕적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의 일생은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칭찬한다. 칸트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의 중요함을 설파하며 인간다운 삶, 가치 있게 사는 삶을 살 것을 주문한다. 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동시에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칸트의 도덕 철학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이 무엇이며, 도덕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도덕의 본질은 분명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3. 공리주의의 윤리 사상

#### 1) 도덕과 합리성

칸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덕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를 탐구했다면 공리주의자들은 도덕이 무엇인가의 문제보다 도덕이 왜 있는가를 묻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도덕의 핵심은 이 세상에 있는 존재자들의 행복으로만 이해될 뿐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니다. 도덕은 왜 있으며 도덕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공리주의에 따르면 도덕 규칙은 사회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간이 창안해낸 것이다. 도덕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회적 기능에 있으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神的으로 주어진 어떤 도

덕률이나 어떤 융통성이 없는 고정적인 규칙에 맹종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 안에는 무엇보다도 도덕은 유용한 것이요, 쓸모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믿음 즉, 도덕은 합리적인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리하여 공리주의의 창시자 벤담(J. Bentham 1748~1832; 영국 법학자·철학자. 런던 출생.)은 다음과 같이 윤리학을 정의한다. ‘윤리학은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행위를 지도하는 기술에 불과하다.’ 도덕이란이 세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하려는 의도일 뿐, 그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도덕 규범들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에 공헌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리 입문,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 Legislation>(1789)에서 그의 공리주의 사상을 전개하는 바, 이 책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자연은 인류를 苦痛과 快樂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지적하는 것도 오로지 이 두 군주에 달려 있다.’ 이 글의 의미는 무엇인가? 위 문장들의 의미는 인간은 본성상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이는 부인하려면 부인할 수 없는 자연적 사실, 인간의 자연적 본성임을 인정하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의 토대 위에서 도덕과 가치의 문제를 생각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벤담을 위시한 공리주의자들은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에서 구하지 말고 경험적인 사실 즉,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현실에 근거해서 찾아보자는 입장에 서 있다. 인간의 타고난 이기적 경향을 자연적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이에 기초하여 도덕 이론을 전개해야 그것이 현실적이고 진정으로 합리적인 도덕 이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 서서 도덕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쾌락과 고통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인간 행위를 결정하는 궁극적 원리,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은 쾌락이다. 쾌락은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궁극적 원리로서 인생의 주요 목적은 쾌락에 있다. 즉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공리주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답하는 것이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 가능한 한 많은 쾌락, 행복을 추구하고 가능한 한 적게 고통을, 불행을 동반하는 삶이 좋은 삶이다.

## 2) 선과 악, 좋음과 나쁨

공리주의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이 거짓말이건 도둑질이건 행동이건 마찬가지다. 행위의 도덕적 올바름 여부는 행위의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행위 배후에 있는 동기나 의도는 지극히 훌륭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고통을 가져왔다면 그것을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주장이다. 벤담은 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크다면 좋은 행위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의 총량이 쾌락의 총량보다 크다면 그것은 나쁜 행위, 그른 행위이다. 즉,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르냐 하는 문제는 그 행위가 쾌락 또는 고통을 어느 정도 조장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공리주의자들에게 있어 좋은 것은 옳은 것이다. 선과 악,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은 구별되지 않는다. 공리주의에 있어서 옳은 것과 좋은 것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좋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며 나쁜 행위는 도덕적으로 그른 행위다.

이처럼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어떤 종류의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달려 있다. 칸트의 윤리 사상과는 달리 공리주의는 행동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과론적 윤리설의 입장에 선다. 어떤 종류의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라고 벤담은 주장한다. 하나의 궁극적인 도덕 원리가 있을 뿐인바 그것은 곧 有用性의 원리(the principle of utility)이다. 그에 따르면 유용성의 원리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성에 따라, 다시 말해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모든 행동을 시인하거나 비난하는 원리를 의미한다.’<도덕과 입법의 원리 입문>. 도덕의 원리는 유용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벤담은 ‘우리는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마땅히 해야 할 행위 또는 적어도 해도 좋은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명한다. 유용성이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이다. 이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여러 행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 3)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담은 개인의 쾌락 추구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로 나아간다. 개인들이 최대의 공리, 쾌락, 행복을 목적으로 하듯이 사회의 목적도 마찬가지다. 유용성의 원리는 우리가 여러 가능한 행동들이나 사회 정책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그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오는 행동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유용성의 원리는 일반 사람들이 개인적인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서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기준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벤담의 유용성의 원리는 도덕뿐만 아니라 법과 정치 기타 사회 제도를 설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만일 한 사회가 유용성을 그 사회의 기본적 도덕 원리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법의 제정도 이 유용성의 원리에 의해 평가될 수 있고 평가되어야 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공동체의 이익은 단지 그것을 구성하는 성원들의 이익을 합한데 불과한 것으로 개개인의 행복의 총화는 사회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된다. 그럼으로써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바람직한 사회의 이념형으로서 제시한다.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정책이라도 그것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최대 행복의 추구에 있다. 이 일반적인 선인 보편적 행복을 목표로 해서 이기적인 개인과 개인은 자연스럽게 결합된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복의 총화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리로 하는 입법 및 정치상의 개혁을 통하여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 개인적 선과 사회적 선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 후 공리주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대표적인 윤리사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 4. 도덕 윤리 규범의 절대성과 상대성

칸트와 공리주의의 윤리사상은 현대 윤리 이론을 대표하는 양대 사상으로 꼽힌다. 그러나 한편으로 19세기 이후 과연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윤리 규범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칸트의 윤리사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법칙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행위의 옳고 그름은 이 법칙에 비추어서 판단될 수 있다고 본다.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법칙이란 인간의 정서, 태도, 욕구, 사회적 배경, 시대와 공간에 관계없이 존재하며 자기의 뜻에 따라, 어떤 사회의 선호에 따라, 어떤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시대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공리주의 사상 역시 단 하나의 궁극적인 도덕 원리로서 유용성의 원리를 말한다는 점에서 도덕의 절대성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가치, 다양한 문화를 동등한 선에서 수용하려는 다원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윤리의 측면에서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규범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도덕 원리는 각 개인에 따라 혹은 사회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보는 입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우리는 이를 윤리적 상대주의라 부른다.

윤리적 절대론이 윤리란 영원히 변치 않는 규범으로서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입장임에 반해서 윤리적 상대론은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각 개인에 따라 혹은 시대나 장소, 문화 등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므로 선악을 측정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무엇이 참으로 옳은가 그른가는 오로지 개인이나 사회가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지에만 달려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은 문화, 계층, 개인적 배경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요,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윤리적 주관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규약적인 윤리적 상대주의이다. 윤리적 주관주의는 객관적인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으며, 윤리적 판단은 어떤 사실에 대한 개인의 감정, 태도의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도덕성은 개인의 감정, 정서, 태도, 생각하는 방식에 기인하기 때문에 도덕적 옳고 그름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규약적인 윤리적 상대주의는 도덕 규칙이 개인의 정서적 기호나 감정 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규칙은 그 규칙이 적용되는 특정 문화, 특정 사회 속에서 관습이나 개개인의 동의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자면 도덕 윤리 규범은 어떤 시대, 일정 지역에서만 타당한 것이 된다. 때문에 도덕적 표준이나 규칙은 이러한 표준이나 규칙을 현실적인 도덕들의 일부분으로 채택한 사회의 구성원에게만 올바르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윤리적 주관주의의 시초는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의 사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피스트의 한 사람인 프로타고라스Protagoras(B.C 5세기)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한다. 이때의 인간은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 함은 개개인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사물이 어떤 것이건 간에 인간 각자가 그것을 보고 있는 한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그대로 그 사물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물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즉, 진리는 대상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체 자신이 스스로의 의견을 말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보편 타당하고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 마찬가지로 프로타고라스는 사람마다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가치란 근



본적으로 개인의 心的인 태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가 그르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이는 지식이나 가치가 개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만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규약적인 윤리적 상대주의는 현대의 문화적 상대주의 진영에서 강조되는 입장이다. 미국의 사회 인류학자, 섬너W.G.Sumner는 그의 저서 풍습(Folkways, 1906)에서 다음과 같이 관습의 기원·본질·가치를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한다. 도덕이란 인간 사회의 일반적 생활양식, 즉 풍습에서 유래한다. 인류가 그들의 원시적 욕구를 채우려는 맹목적인 노력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행동 양식은 有益하고 어떤 행동 양식은 無益하다는 것이 거듭된 시행착오 끝에 알려지게 된다. 그 가운데 유익함이 밝혀진 행동의 양식은 일반이 다 같이 따르게 되니 이것이 곧 풍습의 형성이다. 풍습이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공헌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서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관습, mores이 형성된다. 섬너에 따르면 관습은 이미 개인의 의지를 초월하는 것이며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도덕이라는 것도 실은 저 관습의 세련된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미개인들의 관습과 문명인들의 도덕 사이에는 오직 발달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근본적 성질은 같다. 이처럼 도덕 판단이란 우세한 관습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가장 세력 있는 관습에 일치하는 행위는 옳은 행위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른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윤리적 상대론은 타인의 가치와 문화, 다른 사회의 관습과 제도 등에 대해 열린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림으로써 배려와 관용의 자세를 갖게 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상대방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각 민족마다 고유한 문화적, 도덕적 규범 체계가 있으며 이들은 동등한 타당성과 가치를 갖는다는 것, 다른 모든 문화는 우리 문화와 똑같이 객관적으로 훌륭한 것임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윤리적 상대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우선, 가치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의견들이 참이면 결국 그에 반대되는 의견도 참임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것도 참이 될 수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어떤 것도 참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나의 가치 체계가 옳고 너의 가치 체계도 옳다고 주장할 때, 객관적 가치의不在로부터 이 끌어지게 되는 결론은 허무주의가 될 것이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면 상호 작용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상호 교류하는 세계에서 가치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가치의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덕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도덕의 기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일찍이 홉스는 도덕은 자연 상태를 막아야 할 최소한의 목표를 갖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윤리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러한 도덕의 기능이 상실되고 도덕은 무의미한 것으로 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윤리적 상대주의는 強者の 지배의 논리가 될 수 있다. 상대주의가 나의 진리만 이 옳다는 특정 지식체계의 배타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면 동시에 어느 특정 지식 체계의 현실에서의 사실적 우월성에 대한 주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측면을 지닌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약자에게는 저항의 논리가 될 수 있으나 강자에게는 지배의 논리도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대주의는 모든 지식 체계, 또는 가치 체계에 동등한 정도의 타당

성 또는 부당성을 부여한다. 만일 상대주의가 참이고 상충되는 진리와 가치에 대한 주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문화와 전통 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지식 체계들의 상충하는 진리에의 권리 주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 간, 혹은 개인 간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문화와 문화와의 관계는 진리나 이성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은 발가벗은 의지와 힘의 관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명백히 부도덕한 것을 도덕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거나 혹은 이를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일관되게 상대주의를 주장하려면 우정, 사랑, 자유, 민주주의를 찬양하고 증오, 살인, 노예제 등을 비난할 객관적인 토대는 없다고 말해야 한다. 상대주의자는 히틀러를 비난하고 마더 테레사를 칭찬할 객관적인 토대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또한 한 사회의 도덕적 진보, 개선, 혹은 발전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사회의 변화 중 어떤 것은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오직 그 시대, 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 자신의 사회가 받아들이는 도덕적 기준, 규범을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노예제도나 인종차별, 남녀의 성적차별, 유태인 학살 등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비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었다고? 흑인 노예제도가 그 시대엔 옳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 아프카니스탄의 여성 차별이 그 사회의 관습이며 문화적 전통이므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일 상대주의가 옳다면, 과거의 도덕률이 그 시대 상황에서 나온 타당한 관습의 산물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현대사회의 우리의 관점에서 과거의 사회를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개선, 인종차별의 철폐, 노예 해방, 계층적 차별의 철폐, 자유의 확대 등등에 대해 우리는 이런 변화들을 정당하게 진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각 사회마다 다른 규범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공통적인 도덕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 사람들이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거나 서로 다른 배경, 환경,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대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하는 방식이나 윤리적 판단 역시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없으며 도덕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그 가치관이나 윤리적 판단의 원리가 반드시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과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상대주의는 궁극적인 도덕 원리와 구체적인 도덕적 표준, 규칙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인 도덕 원리는 존재한다. 예컨대,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궁극적 도덕원리가 될 수 있다. 유용성의 원리나 자유와 정의의 원리 또는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大 원칙, 충효 그것을 포괄하는 사랑의 가치, 인류애, 사회의 평화 질서와 공동선의 추구 등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윤리 규범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원리의 구체적 표현이나 도덕의 하위 규칙이 다를 수는 있다. 또한 구체적 규칙이나 판단이 상대적이거나 문화 제한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 적용의 방식에 있어서 다를 뿐, 궁극적인 도덕 원리는 서로 다른 사회의 도덕률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도덕 규칙의 다양성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 우리는 진실이 거짓보다 낮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어느 시대나 유효한 것임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적 상황에 알맞게 보편적인 규범을 응용 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이며 실천적 이성과 노력이 요청되는 끊임없는 훈련이다.